



포스코청암재단, 해외유학장학 증서수여식 개최

포스코청암재단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6 포스코 해외유학장학 증서수여식'을 열고 해외 대학 박사과정 장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노이준 장학생, 서동웅 장학생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포스코홀딩스



웅진프리드라이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수상

웅진프리드라이프가 국가보훈 문화유산과 호국영령 예우 활동에 기여한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 (왼쪽)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웅진프리드라이프



KB국민은행-강북삼성병원, 시니어 건강증진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강북삼성병원과 '시니어 건강 증진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왼쪽 두번째), 전원상 강북삼성병원 행정부원장 (왼쪽 세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안전교육체계 성과 입증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안전체험교육센터의 구축 과정과 운영 성과, 자사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안전교육체계를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려아연



롯데GRS, 국립중앙박물관 '한식미관' 개장

롯데GRS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푸드코트 '한식미관'을 개장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서관 전시동 1층에 들어선 '한식미관'은 약 276평 규모에 310석을 갖췄다. 문화시설 내 식음(F&B) 사업을 확대하며 컨세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롯데GRS

현대차, 中 베이징서 '블루 프라이즈+ 2025' 첫 전시

문화 기반 글로벌 마케팅 전개
작가·예술가 집단 8개 팀 참여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 등의 공유를 위한 문화 마케팅을 진행한다. 그 시작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예술 중심지 베이징이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중국 현대 모터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현대 블루 프라이즈+ 2025'의 첫 번째 전시인 '프레이어스 투 포낙스: 과학, 기술 그리고 영성'을 개막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 블루 프라이즈+'는 국내외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주요 담론을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 중국의 '현대 블루 프라이즈 아트+테크'와 한국의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을 운영하



현대 블루 프라이즈+ 2025 'Prayers to Fornax: Science, Technology, and Spirituality' 전시 전경.

며 총 14개 큐레이터팀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두 프로그램을 '현대 블루 프라이즈+'로 통합하고 참여 지역과 분야를 확대했다.

통합 이후 처음 진행된 지난해 공모에는 전 세계 160여개 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전시를 기획한 웨이이 평수 샤오단팀과 내년 1월 전시를 선보

일 박혜진·박윤영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웨이이평과 쉬 샤오단이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준 발타자르·피에르 포즈, 자크 블라스,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하룬 미르자, 리아르 리잘디, 나타샤 토펙, 수잔 트라이스터, 천 저 등 작가와 예술가 집단 8개 팀이 참여했다.

전시는 과학과 기술, 영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과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과 자연에 남은 역사와 기억, 사머니즘과 신비주의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룬다. 전시 제목에 사용된 '포낙스(Fornax)'는 라틴어로 실험실 난로나 용광로를 뜻하는 남반구의 별자리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외에도 글로벌 미술관 및 문화기관과 장기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영국 '테이트'와의 협력은 203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과의 파트너십은 2037년까지 연장했으며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도 2034년까지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송미령 장관, 농촌특화지구 현장 점검

합천군 쌍백면 방문... 주민 의견 청취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각각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재생하기 위해 시·군이 지정하는 지구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국내 최초의 농촌특화지구인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했다. 그는 주민들과 만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매년 방문객 4000여 명이 인구 약 200명의 쌍백면 평구리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은 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경남 합천 '농촌특화지구' 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롯데칠성음료, '아이스스' 레드닷 본상

'친환경 패키지' 경쟁력 인정 받아

롯데칠성음료는 생수 브랜드 '아이스스'의 초경량 용기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자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재활용 편의성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제품 설계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스스 초경량 용기는 500mL 페트병 무게를 기존 11.6g에서 9.4g으로 약 19% 줄이면서도 구조 설계를 개선해 내구성을 유지했다. 사용 후 쉽게 압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재활용 효율을 높였고, 라벨 없이도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용기 형태를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사용도 최소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법무부 ◇교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담당장 한재용

◆국세청 ◇교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우정 △중부지방국세청 정세송국장 강동훈

부음 ▲조연수씨 별세, 이선택·이선옥·이선영·이선숙·이선미(영동농협

경영본부장)·이계숙씨 모친상, 김갑용(충청매일 부국장)씨 장모상 = 20일 오전 2시 30분, 영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5빈소. 발인 22일. 0507-1472-4499

▲황준구씨 별세, 김미덕씨 배우자상, 황병춘·황병훈(춘천MBC 보도제작국장)씨 부친상 = 20일, 강원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특실5호, 발인 22일. 033-252-0046



한국거래소는 20일 부산 본사에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금융교육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뉴시스

거래소, 특성화고 학생 금융교육 지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가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부산 본사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후원금 7000만원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박기호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2012년부터 금융교육 기회

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지역 특성화고 및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인 'KRX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KRX 방문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도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금융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마사회, IP시대 말산업 비전 제시

AFPRO 참가... 말 산업 기업 지원

한국마사회가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에 참가해 '말산업 기반의 테크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의 후원기관인 마사회는 말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지원했다.

이올러 올해 초 국내에 들어온 '닉스고'(세계 챔피언 경주마) 기반의 콘텐

츠를 비롯해, 경마 시행을 넘어 IP(지적 재산권) 시대를 맞이한 말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사회와 손잡고 말산업 관련 테크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창업기업은 월리테라피, 림피드, 브로즈, 아티젠스페이스 등 4개사다. 이들 기업은 협장에서 말 매개 치유농업, 동물 모니터링 및 행동분석, 말산업 시설 및 공간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